

# 日本の 國際化 對應類型과 地方自治團體의 國際化 對應에 關한 研究<sup>1)</sup>

A Study of Corresponding Models of Japanese Internationalization

尹 載 善

(翰林專門大學地方行政學科副教授)

< 目 次 >

- I. 序 論
- II. 日本 國際化의 歷史的 考察
- III. 日本에있서의 國際化의 意味
- IV. 國際化에 대한 日本의 對應類型
- V. 日本 地方自治團體의 國際化 對應方向
- VI. 結 論

< ABSTRACT >

Nowadays, the term "internationalization" is used worldwide. this study explains the Japanese use of internationalization. what do the Japanese think about it, how did they traditionally cope with it, and when Japan was unified, what specific characteristics did they share with their neighbours during internationalization?

Before Unification, the japanese used internationalization in different ways. after Japan was unified, there were several ideological turning points white became the

1) 이 논문은 1996년도 한림과학원 단기연구과제 연구비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period of internationalization. the modern Japanes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ization, in respect to the economy, started about 1960. the Japanese, according to materials studied for this thesis, tended to follow western thought and to exclude Asian thought and culture i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ir government from the federal to the municipal levels.

The Japanese intended to cutback or evade relations with the East before Japanese modernization. this kind of viewpoint should be criticized. I tried to analyse corresponding models of historical studies in Japan and emphasize international relationships with Eastern countries from the Meiji Yusin Period.

From the analysis of corresponding models, I concluded that the Japanese copied the Western countries. The Japanese tended to think their invasions of Eastern countries were internationalization, in the name of modernization. That is to say, I showed that the traditional Japanes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ization ment the Japanese copied ideologies when they were weak and they periodically implemented expansionist policies when they accumulated power

I hope that this thesis provides useful guidelines for understanding and positive growth as Japan continues to develop internationalization in the coming twentyfirst century.

## I. 序 論

오늘날 국제화라는 용어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국제화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현대적 의미의 국제화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에 경제분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정부문서에 간간히 출현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그 사용하는 용어만 달랐을 뿐이지 국제화로 불리우면서 일본이 국가로 통일되기 이전부터 이웃해 있는 지역과는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 국가로 통일된 이후에도 오랜 세월 에 걸쳐서 국제화의 시기가 되었던 몇차례의 시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 국민국가와 민족국가를 대신하여 새로운 글로벌시스템이 요구되어지는 시기에 일본국제화의 과정과 그 특성을 밝힘으로써 국제화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의 대응유형과 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일본에 있어서 국제화란 무엇을 의미하며 일본인들은 국제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일본국제화의 역사적 전환기와 일본의 제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화 대응의 일반적인 분석틀을 설정하여 일본 고유의 국제화의 특성과 대응유형을 분석하고자한다.

연구의 방법으로서 먼저 국제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주로 관련문헌과 일본 정부문서를 참고로 하였다. 일본인의 국제화에 관한 인식을 비롯한 국제화 추진과정의 분석 등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주로 일본인들의 주장과 일본문헌 및 일본정부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있어서 일본의 국제화는 어떠한 유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II. 日本 國際化의 歷史的 考察

### 1. 日本 國際化의 歷史的 轉換期

#### 1) 일본 국제화의 전환기에 관한 논의

최근 「국제화」라는 용어가 범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지면서 21세기는 국제화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화」라는 용어는 그 용어, 또는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이와 같은 유형의 국제화가 현대사회에서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日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國際化」라는 用語가 널리 使用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日本의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國際化」라는 새로운 用語의 사용시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國際化」의 개념을 타국가 또는 타민족과의 관계와 접촉 또는 일정한 地域과 地域사이의 人的交流, 文化交流, 技術交流, 交易, 留學등 廣義의 국제교류의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日本은 역사 이래 지리적으로 이웃에 접해있는 국가들과는 끊임없는 교류를 해왔다. 다시 말해서 日本이 國家로서 統一된 이후 천 수백 년간에 걸쳐서 國際化에 관한 전기가 되었던 몇 차례의 시기가 존재하였고 그 시기를 중심으로 무수하게 「國際化」에 관한 논의는 이어져 왔었다(伊藤彰浩, 1990: 9-10).

현대적 의미의 국제화도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世界化」 「國際 關係化」 「相互 依存化」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면서 범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국제화」 라는 용어는 1960년대 초에 경제분야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국민들도 국제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제화 시대」 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타나 있듯이 국제화를 1980년대, 1990년대까지의 현대적 개념으로서 한정하여 규정하기도 한다(天沼香, 1989: 20-21) 하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 구성원으로서 일본적 특질을 가진 사회시스템으로서 다른 사회시스템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의 국제화는 결코 제2차세계대전후의 독점물은 아니다.

일본 국가사회 시스템이 외부에 나가는 형태를 가지거나, 같은 양상으로 다른 사회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소위 사회시스템의 개방화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 없이 반복되어 왔다. 그렇다면 일본에 있어서 국제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일본인은 국제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일본국제화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일찍부터 중국이나 조선으로부터 정치 문화적 영향을 받았고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 국제화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일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집중호우형적인 국제화를 추진해 왔다(星野, 1994: 4).

그 대표적인 예가 7세기경부터 일본은 수나라와 당나라에 사절단과 유학생을 파견하여 외국의 제도와 문물을 배워왔던 시기이다. 그것이 7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서 세계적으로도 그 예가 드문 대규모의 국제적 사절단을 당나라에 파견했던 유명한 遣隋使, 遣唐使이다. 특히 遣唐使의 파견은 7-9세기에 걸쳐 260여년 동안 무려 15회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목적은 문자, 종교, 법률, 관료제, 그리고 도로 만드는 방법으로부터 농업관계, 의복입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선진 문화의 제 요소를 토탈형식으로 도입하는 등(失野暢, 1986: 161-162).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 대륙과는 일찍부터 활발한 교류 (현대적 의미의 국제화)를 해왔다.

위의 기록에서만 보더라도 당시 일본은 중국 및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제국가들과 현대적 의미의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국제화 전개과정 중에는 이러한 모방적이고 우호적 국제화 뿐 만 아니라 패권적 국제화도 함께 추진해왔다. 동경일극중심 발전의 문제점과 일본사회가 더 이상의 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숙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하는 국제화를 추진하고있다는 생각이다. 「국제화」 라는 것은 동일화, 표준화의 요소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에 의한 정복·병합과 제국주의도 일종의 국제화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은 이미 「국제화되어 있었다」(佐佐木毅, 1991: 28-29)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1591년 9월에 모든 다이묘(大名)들에게 조선반도 침략을 명령했던 임진왜란도 하나의 국제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전쟁에 의해 단절된 국교회복을 위해 1607년에는 조선의 사절단을 일본에 초청하고, 1609년에는 己酉條約(日本에서는 慶長條約이라고 함)을 맺어서, 매년 20척의 무역선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후 쇼우군(將軍)이 바뀔 때마다 경축 사절단으로 초빙받은 조선통신사<sup>2)</sup>가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조선통신사의 파견은 그 당시 일본의 철저한 쇄국체제하에서도 신의를 통할 수 있는 나라로서(황인영, 1995: 91-92) 조선과의 인적교류, 문화 및 접촉은 계속되어 왔던 국제화의 훌륭한 모델중의 하나이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아시아의 제국가들과 오래 국제교류를 맺어왔다.

그러나 1853년 페리호라는 외국함대의 내항에 의해서 지금 까지 아시아 문화중심의 국제관계에서 서구문화 중심의 국제관계로 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일본사회는 200년 이상의 쇄국정책으로부터 벗어나 닫힌 사회로 부터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개방화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문명개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신정부는 서구화 정책·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메이지유신(明治維新)초기부터 약 20여년 간의 기간은 일본역사 이래 국제화론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였다.

「국제화」= 「서구화」의 추진은 당시 정치지도자들의 강한 의지였다. 이와 같이 철저한 서구화론은 당시 교양인과 지식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일본자체의 문화적 전통마저 부정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우리에게는 역사가 없다. 우리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한다」(「ベルツの日記」, 1979:47).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서구화했다.

뿐만 아니라,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시기에는 일본어를 영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일본 최초의 국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모리(森有禮) 당시 문부성장관은 일본어를 아예 없애 버리고 영어를 국어로 하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당시의 대표적인 작가인 시가나오야(志賀直哉)는 프랑스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므로 프랑스어를 국어로 하자고 하는 주장에까지 이르렀다.(眞鎬俊二, 1990: 9).

2) 通信使 또는 來聘使라고 했으며,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往來 했다. 人員規模는 約 400餘名으로 招請費用은 每回100万兩에 달했는데 幕府는 將軍就任을 慶祝하는 儀典의 側面과 權勢를 誇示하는 立場에서 아주 盛大하게 맞이했으며 極盡하게 待遇했다고 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구화의 과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884년에 완공된 르네상스 양식의 하얀 2층 건물의 사교 클럽인 로쿠메이칸 이라는 무도관에서 화려하게 개최된 무도회와 파티는 문자 그대로 「문명개화」의 에필로그를 장식했던 것이다(서현섭, 1995: 22-23). 이와 같은 연유에 의해서 많은 일본인들은 에도시대(1603년-1867) 말기에서 메이지 시대(1867-1912) 초기의 쇠국체제로부터 개국체제로 전환하는 시기를 근대국제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sup>3)</sup>

근대 일본의 「국제화」는 일본사회 시스템을 서구 사회시스템으로 맞추어갔던 「서구화」이었다. 일본이 서구화됨으로써 이제까지의 비국제화 상태로부터, 스스로도 국제화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갖고있는 국제화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일본의 역사에서 나타난 국제화의 전환기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2) 일본 국제화의 주요전환기

일본에 있어서 국제화의 전환기에 대한 구분을 많은 학자들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근대화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몇 차례의 전환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아마코사토시(天兒 慧)교수(天兒 慧, 1995), 키다무라 카즈유키(喜多村和之)교수(喜多村和之, 1990: 11)를 비롯한 이토우 아키히루(伊藤彰浩)교수, 호시노 아키요시(星野昭吉)교수등 국제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본국제화론의 계보에 관한 관점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먼저 국제화의 제1전환기로서 에도(江戸) 시대 말기로부터 메이지(明治)시대 초기의 쇠국체제로부터 개국체제로의 전환을 근대국제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제2전환기는 제1차세계대전 후의 안정적인 베르사이유 체제와 워싱턴 체제, 국제연맹 체제, 不戰條約 체제의 성립을 통해서 나타났던 大正期の 국제협력주의의 시기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평화의 수단으로서 규범적인 교육의 국제화론이 주장되고 각 국민에게 공통하는 평화교육체제확립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졌던 시기이다.

제3전환기는 서구적 국제질서와는 다른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 건설」이라고 하는 독자의 국제질서를 추구하려했던 「대동아 공영권」 구상의 시기이다. 소위 아시아 諸國家에

3) 여기에 관한 參考文獻은 다음과 같다. 天兒 慧, 『日本の國際主義』, 國際書院, 1995. : 聖野 昭吉 編著, 『國際化日本の現在』, 1994. : 澤田昭夫・門脇厚司 編, 『日本人の國際化』, 日本經濟新聞社, 1990. : 眞鍋俊二, 『國際化の意識革命』, 一新時代へのベスポートー, 法律文化社, 1990.

대하여 「일본화」를 강요했던 「대동아공영권」 구상은 공격적·독선적 국제화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4의 전환기는 제2차세계대전 후 능동성을 결여했던 이상주의적인 「평화국가론」으로서 「국제화론」이 나타났다. 그후 내셔널리즘의 고양을 계기로 일본의 국제적 입장을 둘러싼 정치적 사상적 대립이 있었던 시기이다.

제5전환기는 상호의존세계 가운데에서의 일본의 경제적 향상을 배경으로 경제·정치를 둘러싼 국제화론이 전개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근대 국제화의 출발점에 대해서 대체로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초기의 서구화과정으로 규정하고 그 표현하는 용어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전환기를 보는 시각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화의 출발점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의 「서구화」, 「근대화」의 시기로 파악함으로써(天兒 慧, 1995: 7-8)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전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기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근대 아시아와의 관계마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논리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전의 근대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아시아 제국들과의 활발했던 제반 교류는 국제화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은 일본에 있어서 근대국제화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보다는 서구문명을 받아들임으로서 일본이 근대화·서구화되어 가는 전환기이었다. 동시에 그 동안 아시아에 위치해 있었던 국가들과의 교류로부터 서구에 위치해 있었던 국가들과의 교류로 옮겨갔던 시기였다. 즉, 아시아 제국들과의 국제화관계에서 서구제국들과의 국제화 관계로 바뀌는 전환기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 국제화의 변천과정에 관한 시대적 구분에 있어서 메이지 유신을 국제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일본국제화를 논함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아시아와의 관계를 논하지 않고 국제화를 논한다는 것은 일본국제화의 단면만을 논한다는 생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일본에 있어서 국제화의 역사적 전환기

4) 丸山眞男, “近代 日本思想史における 國家理性の問題”, 『忠誠と反逆』, 筑摩書房, 1992. 참조. 마루야마(丸山眞男)의 인식 속에는 일본의 민족주의가 1930년대와 1940년대의 군국주의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나 그 이전의 일본의 근대화가 제국주의 팽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선침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전후 마루야마는 우카이 노부시게와 더불어 1950년 1월 유명한 제3차 평화문제 담화회의 선언문을 기초한 바 있다. 그 선언서에서 전쟁으로 인한 일본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비동맹 중립에 의한 평화와 반전의식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해서 일어났던 전쟁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아시아인들의 희생에 관한 고려가 희박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를 다음과 같이 일곱 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일본이 아시아 제국과의 국제화 관계로부터 서구제국 중심의 관계로 전환하게 되는 전환기의 배경에 있어서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기준으로 하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전의 아시아 제국과의 제반 국제관계를 ① 「아시아 문화중심의 국제화기」로 명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초기부터 일본 근대화의 초기에 국제관계의 축을 아시아로부터 서구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에 관해서 일본의 많은 학자들은 「제1의 개국기」 또는 「문명개화기」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脫亞入歐」하여 서구제국과의 관계만을 국제화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② 「서구문화 중심의 국제화기」로 명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침략,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잠깐 추진되었던 「大正期 국제협조론」 그 이후의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까지를 포함하여 ③ 「제국주의적 국제화기」로 구분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관해서 일본의 학자들은 「대정기 국제협조론」 또는 「교육의 국제화론」등으로 명명하고 있으나 실은 이 시기에 일본은 당시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가에 대한 식민지확보에 급급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구로부터 아시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시아를 침략했던 「대동아 공영권의 구상」을 ④ 「대동아공영권기」로 구분하기로 한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후의 국제질서의 재편성단계에서 패전국 일본이 미군의 통치하에서 다시 개방된 사회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대하여 일본의 학자들은 「평화국가론기」 또는 「패전에 의한 제2의 개국기」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미국사회를 모방하는 ⑤ 「제2의 서구중심의 국제화기」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그 후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일본의 고도성장에 의한 국제역할론과 함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라는 용어가 일본사회에 출현하기 시작했던 ⑥ 「일본경제의 국제화기」로 구분하기로 한다. 끝으로 1980년대 말경에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종말에 의해서 새로운 글로벌리 시스템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하여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⑦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제화기」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 2. 현대적 의미의 국제화론 대두

### 1) 「국제화」라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

일본에 있어서 「국제」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정확한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메이지(明治) 6년에 미쯔쿠리린쇼(箕作麟詳氏)가 「국제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그 시초라고 보고 있다(尾佐竹猛, 1932: 41).

영어의 「International」의 번역어로서 「국제」라는 표현이야말로 일본이 근대화의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단어였다고 한다. 그후 「교육의 국제화」라는 용법으로서 大正11년-12년 걸쳐서 사용되어 왔으나, 오늘날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화」라는 용어가 일본인에게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의 일이다.

키타무라 카즈유키(喜多村和之)교수는 1961년 11월8일 「일본경제신문」의 「국내정책의 국제화」라는 칼럼에서 출현하고 있는 국제화의 용어에 관하여 4가지 사항에 관해서 주목하고 있다. 첫째, 국제화라고 하는 용어가 괄호(「」) 안에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아직 일반인에게 유포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화」라는 생각은 우선 경제, 정치분야의 현상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여기서의 「국제화」의 의미는 국외의 경제와의 조정·협조의 필요성과 경제정책 면에서의 국내·국제적 경계가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국제화」라고 하는 용어는 1960년대에는 경제전문지의 「일본경제신문」에 한해서 나타 나 있고, 아사히(朝日)신문 등 다른 일반신문에 이와 같은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된 것은 1967년 이후부터라는 것이다(喜多村和之, 1990: 28-30).

이렇게 국제화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1960년대는 전세계의 경제성장의 시기였으며 일본은 전후의 경제부흥을 이미 달성하고 고도 경제성장 정책이 추진되려고 하는 시기였다. 그 후로부터 10여년간 일본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년10% 전후에 달했고 일본 경제성장의 확대와 함께 국제화폐 체제의 안정적 유지로 국제무역이 확대되고 일본 제품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생각할 때 당시 일본 경제신문에 보도된 국제화에 관한 논조는 국가의 경제정책의 수단의 하나로서 파악할 수 있다.

## 2) 정부 공문서에 「국제화」란 용어의 출현

일본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나타난 정부문서에 의한 國際化에 관해서는 삿포로학원(札幌學院)대학의 츠보이찌가우(坪井主税)교수가 히토쓰바시(一橋)대학의 야마모토미츠로(山本滿)교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로서 「國際化」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정부문서를 다음과 같이 찾아내었다.

츠보이(坪井)교수가 찾은 문서는 ① 「經濟社會發展計劃 — 40년대의 挑戰 —」(1967년

3월) ② 「經濟審議會資源研究委員會報告書 — 經濟化時代の 資源問題」(1969년 12월) ③ 「新經濟社會發展計劃」(1980년 5월)등 3개의 문서이다. 그 이후에도 정부에 의한 「국제화」라는 용어는 계속 출현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 정부문서에서 나타나는 「국제화」라는 용어는 하나의 정책으로서 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980년대에 있어서 국제화에 대한 일본정부의 문서는 ① 「昭和56年版・經濟白書 — 日本經濟の創造的活力を求めて —」(1981년8월), ②經濟企劃廳 編 「2000年の日本 — 國際化・高齢化・成熟化に備えて —」(1982년 7월), ③ 「昭和59年版・經濟白書 — 新たな國際化に對應する日本經濟 —」(1984년8월), ④ 「昭和61年版・國民生活白書 — 世界に開かれた豊かな生活を求めて —」(1986년10월) 등이 있다. 그 이후 1987년 국토청의 「제4차 全國土總合計劃」에서 국제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1989년에 자치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지침을 작성하여 都道府縣에 하달함으로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일본정부 문서에 의해 「국제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196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1980년대의 정부문서가 위치하는 시대적 상황은 분명히 달랐다. 1960년대는 일본경제의 국제적 지위가 점점 높아짐으로써 새로운 국제 경제시스템과 적극적인 국제화의 추진을 필요로 하는 시기였다. 즉, 일본은 1955년도 GATT 가맹 이후, 1963년도 GATT 11개국(수입제한철폐)의무 이행, 1964년의 IMF 8조국(환율제한철폐)가입, OECD(무역외판매제한철폐)에 가맹한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외화보유고의 급증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채권국으로 전환되었고 1968년에는 자유경제권에 있어서 GNP 제2위의 위치에 올라 있었다(新藤宗幸, 1988: 58-64).

이러한 상황가운데 작성된 「經濟社會發展計劃 —40年代(昭和)에의 挑戰 —」(1967, 3.)이라는 文書는 日本이 1967년(昭和 42년) 부터 1971년(昭和 46년) 까지의 期間(1967 -1971)에 있어서 경제운영의 지침이 되는 것을 각의가 결정한 것으로서 국제화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공식 표명한 문서이다(鹿野義夫編, 1967: 167-278).

이 문서는 계획의 목적 제1항에 전면적 국제화를 게재하고, 「우리 나라(일본)는 관세의 일괄인하와 자본의 자유화에 직면하여 본격적 개방체제로 이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있어서 선진국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발전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1970년의 『新經濟社會發展計劃』에도 일본이 국제 경제사회의 유력한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을 게재하고 있으나, 그

기본적인 기조는 구계획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sup>5)</sup>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교통통신의 발달은 세계 각국의 상품, 사람, 자본,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상호교환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일본의 상품, 사람, 자본, 정보, 기술은 85년 프라자합의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각국의 시스템을 비롯한 외국에 급격히 침투해 들어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가운데 일본정부에 의한 국제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갔다.

이것을 반영하는 정부문서가 1982년에 경제기획청에서 작성한 「2000년의 일본」이라는 문서로서, 21세기를 향해서 일본의 경제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3개의 큰 흐름으로서 「국제화」·「고령화」·「성숙화」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의 추진의 방향을 ①재화·서비스와 무역, ②자본이동, ③기업경영, ④ 정보·문화등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예측하고 일본이 국제화의 진전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일본경제기획청편a, 1982: 214).

1984년에 같은 경제기획청에서 출판된 국제화 연구회보고서(일본경제기획청b, 1984)에서 「“국제화”라는 상품, 자본, 정보(기술을 포함), 사람 및 이들의 총체로서의 문화 등이 국경을 넘나드는 왕래의 증대」라고 정의하고,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세계 가운데서의 일본의 역할」을 위해서 장기적 전망 하에 시장개방, 내수중심 성장에 의한 대외균형의 달성, 직접투자와 기술교류의 촉진, 경제협력의 확충 등을 통해서 세계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일본이 경제적 동물이라는 이미지를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레벨의 인적교류, 다면적인 문화교류, 해외 공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유학생 및 기술연수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사람·기술·정보·문화 등의 교류에 좋은 환경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일본경제기획청총합계획국편, 1983: 146)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1985년도 「外交靑書」에서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완수해야 할 역할과 폐쇄적 사회의 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外交靑書」는 「日本은 戰後復興·經濟發展의 過程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달성하는데 전념한 나머지 국제정세에 수동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일본사회가 국제사회 가운데서 정당한 평가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것에 대하여 관용성과 포용성을 동반하지

5) 日本經濟企劃廳「新經濟社會發展計劃」, 1970. 5. 이 文書에서는 日本의 國際化가 한층 進展하는 가운데 日本政府의 政策的 對應의 強化를 主張하고 있지만 그 內容은 1967년 作成된 「經濟社會發展計劃 — 40年代의 挑戰 —」의 論調와 큰 差異가 없으며 여기서의 「國際化」는 日本이 國際經濟秩序의 有力한 決定 要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않으면 안된다」고 기술하고 있다(일본외무성편, 1985: 7-10).

1988년 5월에 각의 결정한 「經濟運營5個年 計劃」에는 특히, 「世界와 함께 사는 日本」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정책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계의 번영과 일본의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모든 과제에 있어서 세계와 함께 사는 일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책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 경제사회의 특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역사에서 배양된 문화적인 창조성, 가치관 등은 금후에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타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 관용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국제화」(일본경제기획청편, 1987: 266)라고 기술하고 있다.

### Ⅲ. 日本에 있어서 國際化의 意味

국제화의 개념이 애매하고, 동시에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화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그 의미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역사성을 갖고 어떤 상태의 진전 과정임과 동시에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星野, 1994: 15-16).

오늘날 상호의존관계의 증대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국제화시대」의 「국제화」라고 하는 용어는 일본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일본의 국제화를 둘러싸고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제화의 정의, 국제화를 생각하는 입장의 대강과 국제화를 생각하는 척도 등을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일본에 있어서 국제화의 사전적 정의와 영어의 사전적 정의를 상호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일본적 국제화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일본 국제화에 대한 제개념을 정리하고 일본인들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國際化에 대한 西歐와 日本의 辭典的 定義 比較

먼저, 옥스퍼드 英語 大辭典에 의하면 영어의 「Internationalization」은 새로운 용어로서 1864년에 최초의 영어사전인 웹스터에 수록되어 있다. 그 후에 1976년 웹스터 사전 제3판에 「국제화」라는 용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關係, 效果, 또는 範圍를 國際的인 것으로 하는 것, 특히 國際的 管理 혹은 보호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sup>6)</sup>

1961년판 옥스포드사전에 의하면 「性格, 혹은 使用을 國際的으로 하는 것, 특히 근대 정

치학에서(國家혹은 領土등) 여러 국가의 공동통치 혹은 공동보호 하에 두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7)</sup> 여기에 관해서 日本의 江淵 一公은 영어 사전에서 의미하고 있는 국제화의 대상은 언제나 他者(他國)로서 자기자신은 포함시키지 않고 자신은 어디까지나 국제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다(江淵 一公, 1994: 51)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 있어서 「국제화」라는 언어가 사전에 수록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1981년도에 초판으로 간행된 小學館 의 「國語大辭典」에 의하면 國際化를 「국제적인 것으로 되는 것. 세계에 통용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1988년에 출판된 三省堂의 「大辭林」에는 「국제적 규모가 확대되는 것. 예컨대, 경제가 국제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자는 자동사적 용법으로서 일본이 국제화되는 것, 즉, 국제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타동사적 용법으로서 「일본이 국제화하다」로서, 「일본 것」을 다른 나라에 요구하는 「일본화」로서의 국제화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상의 2개의 정의는 그 뉘앙스가 다르다 라는 것에서 파악 할 수 있듯이 일본어의 국제화라는 것은 양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하지만 에부찌 (江淵一公)교수는 비록 문법상으로는 일본어의 「국제화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 또는 타동사의 어느쪽 이든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제화하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자신(자국)이고, 타자(타국)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는 일본어의 「국제화하다」라는 동사는 자동사적 용법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1885년에 「수에즈 운하는 국제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수에즈 운하를 열강에 의해 국제적 공동관리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연합군의 점령통치하에 있었던 종전후의 일본도 확실히 국제화되었던 상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어의 국제화는 자신이 「국제적인 것이 되는 것」으로서 자기자신을 국제화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결국 일본인의 국제화의 논의는 일본 또는 일본 자신이 국제관계에 긴밀히 들어가고 거기에 적합하게 융화되는 존재, 또는 그 상태로 변해 가는 「자기개혁」 방법과 과정에 관한 논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화에 관한 英, 日의 차이는 「“하다”의 국제화」와 「“되다”의 국제화」의 대립이었으며, 일본이 국제화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자국)이며, 타자(타국)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어의 「국제화하다」는 자동사적 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江淵 一公, 1994: 50-51).

6) “To make International in relation, effect, or scope, esp., place under international control or protection.”(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1976.)

7) “To render international politics in character or use ; especially. in modern. politics, to bring more different nations under the combined government” (Oxford English Dictionary, 1961.)

하세가와(長谷川)교수는 유럽의 諸民族國家는 자신들을 능동적 주체라고 보고, 유럽 이외의 민족은 단순한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과 그 식민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국제화의 주체는 언제나 능동적 주체로서 제국가의 연합이며, 국제화되는 대상은 항상 그러한 연합의 국제적 네트워크 이외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국제화의 대상이 되는 국가를 자기들 시스템 가운데에 데리고 들어가기 위하여 활동했던 것은 결코 없었다는 것이며, 언제나 대상은 틀밖에 남기고 능동적 주체에 의해서 그 공동 재산으로서 이용되었던 것에 지나지 않았었다」(Hasegawa Michiko, 1986: 49-55)라고 주장한다.

에부찌(江淵 一公)교수는 이상의 하세가와(長谷川)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타국을 스스로와 대등한 존재로서 동료내에 넣으려 하지 않고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 국제관계를 맺는 것이 유럽 국제화의 본질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국제화 사상은 스스로가 국제사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즉,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일본어의 국제화 사상과는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화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영어의 국제화는 문법적으로 타동사적 국제화로서 타국가 또는 이민족을 자국에 의해서 강제로 「국제화」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의 「국제화」는 자동사적 국제화로서 스스로 「국제화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국제화에 대한 영어와 일어의 차이는 이 점을 강조해서 자동사로서의 국제화와 타동사로서의 국제화의 대립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주장한다.<sup>8)</sup>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어의 국제화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명확하고 하나의 뜻을 가졌다고 생각되어지는 영어의 「Internationalization」과 비교했을 때 그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문맥 뿐 만 아니라 국제화의 변천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국제화하다」의 타동사적 성격과 「국제화되다」의 자동사적 성격의 양면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8) 韓國 辭典에서의 自動詞의 定義는 「움직임의 對象인 目的語를 必要로 하지 않고, 主語自體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單語」로 定義하고 있다.(이기문 監修 『東亞 새 國語辭典』, 東亞出版社, 1990: 日本辭典에서의 自動詞에 대한 定義는 「그 움직임을 그 自身에게만 머물고, 타의 影響을 주지 않는 作用을 表現하는 動詞」로 定義하고 있다.(久松滯一·林大·阪倉篤義監修 『新版·國語辭典』 講談社, 1984.). 江淵一公은 日本語의 國際化는 적어도 現在狀態로서는 辭典的 自動詞의 定義대로 使用되어 지고 있다고 主張하고있다. 한편, 長谷川三天子는 英語의 internationalize 가 他動詞인데 대해서 日本語의 「國際化」는 自動詞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Hasegawa, Michiko, "tyranny of internalization," Japan Echo, Vol, XIII, No3, 1986, pp49-55) 日本語의 國際化라고 하는 單語는 어느 형태라도 使用하는 것이 可能하기 때문에 이러한 判定의 處사는 조금 不正確하다. 그러나 實際用法이 「自動詞」的 이라는 點에서는 그대로이다.」라고 主張하고있다. 하지만 日本에 있어서 國際化의 辭典的 定義와 歷史的 推進形態에 대한 본 연구의 見解는 위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兩面性을 띠고 있음에 동의한다. 뒤에서도 다시 논하겠지만, 日本國際化의 歷史的 過程에 있어서도 그러한 면은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新藤 宗辛도 日本의 國際化論은 受動과 能動의 波狀狀態를 그려 왔다고 말하고 있다.

렇게 일본 국제화의 자기중심적인 발상은 일본과 아시아 제국과의 국제화관계에 있어서 과거 뿐 만 아니라 미래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상세하게 정리하기로 하자.

## 2. 日本 諸學者들의 自國國際化에 關한 認識

우선 일본의 諸學者들은 일본의 국제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1) 쿠리모토카즈오(栗本一男)교수는 「국제화는 일본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간의 접촉, 차이의 인식, 현실의 조정과 시스템의 상호간에 공통점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하고 있다(栗本一男, 1987: 8).

2) 야노마사시(矢野 暢)교수는 1976년에 ① 어떤 국민이 해외에서의 활동범위가 물리적 사회적으로 확대하고, 그것과 동시에 국내에 해외의 문물을 도입할 필요가 높아지는 일, ② 그것과 관련해서, 소위 「文化接觸」의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한 異質的 文化가 서로 접촉하여 만날 때에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일(文化摩擦과 文化複合등), ③ 그러한 「文化接觸」 등의 결과로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하여 상응하는 여러 가지의 룰이 형성되고 그것이 사회에 정착하는 일, ④ 그와 같은 사회적 경향에 연결되어 한사람 한사람의 시민의 감각이 열려져 가는 것」이라는 4가지 측면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은 ③의 외부와의 연결의 룰이 없다는 것과 ④의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世界感覺, 의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일본인이 육성되지 않았다는 2가지 점에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矢野 暢, 1974: 244).

그 이후에 야노(矢野)교수는 1986년도에 「國際化」를 「기본적으로는 지방적 단위와 많은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의 결합체로서 이룩된 국가를 국제사회에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국제화라는 것은 「“고유의 동일성”을 가진 일국민 또는 일민족을, 최대한 마찰이 적은 형태로, 국제적으로 정주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하면서 「국제화」라기 보다는 「국제화정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창하고 있다(矢野 暢, 1986: 160).

3) 오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교수는 본격적인 국제화를 위해서 대량의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시카와(石川好)등의 「개국론」은(石川 好, 1985: 21-30) 舊西獨이 대량의 노동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차별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여 실패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大沼保昭, 1986: 24). 즉, 「이민족과의 공생을 위해 우리들이 변해가려고 하는 의지와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기교육」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大沼保昭, 1988).

또한 1980년대 후반으로부터 국제화와 관련해서 일본사회의 배타적 본질을 둘러싼 외국 인 노동자의 도입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입장에 반하여 지문채취문제 등 정주외국인 문제를 인권옹호의 입장에서부터 취급하고 있는 그는 「국제화」라는 것은 각각 다른 발상, 다른 문화를 가진 세계 제국민이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상호간의 이질성을 인정해 가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大沼保昭, 1988: 24).

4) 이노구치 쿠니코(猪口邦子)교수는 「국제화」라는 것은, ① 실제적 비실체적 요소의 국제적 침투, ② 알기 쉬운 법에 의한 사회의 운영, ③ 인류적 제규범의 제준수와 문명적 가치의 창출, ④ 국제적 복지에의 공헌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변용의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다(猪口邦子, 1987: 188).

5) 키쿠이 토요쓰구(菊井禮次)교수에 의하면, 「근대 일본사회의 국제화라는 것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제반 영역에서의 타국가, 타국민과의 접촉, 교류의 심화라고 하는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菊井禮次, 1989: 3).

6) 야마사키 마사카즈(山崎正和)는 1986년에 일본인에 있어서 국제화라는 언어는 「자신의 생활세계에 일방적인 확대로서, 무엇인가 양보하려 하지 않고 획득하려는 것」으로, 결국 「자기문화는 견고하게 지켜가면서 그것을 확대하는 형태로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개조하려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지만 오늘날 일본 외부에 있는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국제화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나는 현실의 변혁」이며, 그것은 「우선 일본 스스로가 종래의 세계의 요구에 응하고, 사회의 완전한 개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국제화라는 것은, 16세기 이후에 서양에 의해서 발견된 현재의 세계, 즉 「서양적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특수한 문화를 보편적인 문화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특수를 또 하나의 특수에 적응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山崎正和, 1987: 219).

7) 호시노(聖野)교수는 「국제화를 어떤 사회 시스템이 다양한 매개적 요소를 통해서 국제사회 시스템과의 상호접촉, 교류, 이해의 심화과정이며 사회시스템은 국가보다 넓은 내용을 갖고 있으며,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문화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고(星野, 1994: 16-17)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일본에서의 국제화라는 개념은 학자들이 바라보는 개인적인 논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본사회의 개방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전

적 개념에서도 양면성이 있고 실제로도 양면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예컨대 서구에 대해서는 스스로 국제화가 되다는 자동사적 용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시아에 대해서는 근대화를 명목으로 한 국제화하다는 타동사적용법을 국제화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인들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호시노(星野)교수는 日本에 있어서 『「國際化論」은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매우 日本的 현상으로서 認識하고 있는 傾向과 다른 한편으로는, 國際化論은 바람직하며 무조건 진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認識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의 개념은 매우 애매하고 어떤 상황의 진전이 국제화인지 명확한 척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상태의 실태로서 바람직한 규범으로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사용되어지는 경향도 많다』(星野, 1994: 5)고 지적하고 있다.

에부찌(江淵一公)교수는 일본인에 있어서 국제화의 인식에는 몇 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인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국제화」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엇인가 진전한다, 새롭다라고 하는 화려한 이미지가 담겨있기도 하고, 이러한 반응은 이른바 패션으로서의 국제화라고 파악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화를 국익추구·국위발양의 발상으로 생각하고 내셔널리즘으로서의 국제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민족파도 많이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국익을 초월하여 인류의 이익을 생각하는 글로벌리제이션으로서의 국제화의 인식을 갖고 있는 국제파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그 수는 적다고 보고 있다(江淵 一公, 1994: 48).

타케다(武田清子)교수는 근대 일본의 국제화론에는 보편적·인류적 가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국제화」와 일본적인 폐쇄성과 독선적인 특수주의적 사상의 수출로서의 「국제화」라고 하는 두 종류의 유형이 존재하고, 그들이 번갈아 가며 또는, 시기에 따라서는 병존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新藤宗幸, 1988: 58-65). 결국 일본에 있어서의 국제화의 의미는 시대적 상황과 대상국가에 따라서 모방과 진출이라는 파상곡선을 그리는 양면성의 성격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IV. 國際化에 대한 日本의 對應類型

### 1. 國際化 對應의 一般的 類型

일본에 있어서 국제화의 변천과정과 함께 최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제화에 관한 일본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정부문서 등을 통해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 국제화의 진행

과정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국제화란 어떤 특정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통용성, 교류성, 개방성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국제화에 대한 추진방법과 그 대응방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화의 대응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국제화에 대한 일반적 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대응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국제화의 일반적 유형을 설정하기로 한다.

먼저 국제화에 관한 일반적 현상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타국 또는 이민족과의 제반 접촉과 교류가 자국과 자민족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자국이 받아들인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가는 형태. ②자국과 자민족의 문화를 타국과 타민족에게 강제로 이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류와 접촉을 강요하는 형태. ③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국의 문화를 주고받으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상호동화 되어 가는 상호의존적 형태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국제화의 일반적 형태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성격을 분류해 볼 수 있겠다.

㉠ 「국제화의 동사적」 분류로서 국제화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 타동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자동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 「행위의 실제」에 의한 분류로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화의 행위가 주체적인 성격인가 객체적인 성격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 「국제화의 의지」에 의한 분류로서 국제화의 형태가 적극적 성격을 지녔는가 소극적인 성격을 지녔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 「국제화 행위의 상태」에 의한 분류로서 국제화의 형태가 능동적 성격을 띠고 있는가 수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정리한 국제화의 ①, ②, ③의 국제화의 대응형태는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되는지를 정리해 보자.

첫째, 「국제화의 동사적 분류」에 의하면 위의 ①에서의 국제화 형태는 「국제화가 되다」라는 「자동사적 국제화」의 성격을, ②의 국제화 형태는 「국제화를 하다」라는 「타동사적 국제화」의 성격을, ③의 국제화의 형태는 자동사·타동사의 교차적 성격을 각각 지니는 「자·타 혼용적 국제화」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둘째, 「국제화 행위의 실제」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①에서의 국제화 형태는 「국제화의

객체」, ②에서의 국제화 형태는 「국제화의 주체」, ③에서의 국제화 형태는 주·객체가 무의미한 「주·객 혼용적 국제화」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셋째, 「국제화의 추진의지」에 의한 분류로서 ①에서의 국제화 형태는 「소극적 국제화」, ②에서의 국제화 형태는 「적극적 국제화」, ③에서의 국제화 형태는 「상호 적극적 국제화」의 성격을 지닌다.

넷째, 「행위의 상태」로서의 분류는 ①에서의 국제화 형태는 「수동적 국제화」, ②에서의 국제화 형태는 「능동적 국제화」, ③에서의 국제화 형태는 「상호의존적 국제화」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상에서 정리한 국제화 추진형태가 내포하는 국제화의 성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에서의 국제화 형태는 자국이 스스로 국제화가 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자동사적, 객체적, 소극적, 수동적 국제화 등의 복합적 성격을 내포하는 국제화의 추진형태가 된다.

다시 ①의 국제화 형태와 같이 복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국제화의 추진형태를 함축하여 「자동사적 성격의 국제화형태」로 명명할 수 있다. ②에서의 국제화 형태는 자국이 타국에게 자국의 문화를 강제로 이식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타동사적, 주체적, 적극적, 능동적 국제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를 함축하여 「타동사적 성격의 국제화형태」로, ③에서의 국제화 형태는 상호 필요성에 의해서 교류와 접촉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자·타 혼용적, 주·객 혼용적, 상호적극적, 상호의존적 국제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위의 ①, ②국제화 형태와 같은 분류방식에 의해서 「상호교류 성격의 국제화 형태」로 부를 수 있다.

이상의 분류는 다소 도식적인 면은 있지만 국제화가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과정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의 진행과 대응 및 추진형태도 다양한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성격을 정리해 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들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보면 <표 1> 과 같은 국제화의 일반적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아리핀 베이는 국제화를 세계질서의 참가과정의 관점으로부터 분류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늦게 온 자가 고참자의 흉내를 내는 「모방적 국제화」 ② 신참자도 응분의 공헌을 하게되는 「참여적 국제화」 ③미국·구소련과 같이 주도권을 잡고 국제관계를 리드하는 「패권적 국제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Bey Arifin, 1986: 47-72). 아리핀 베이의 분류도 역시 다소 도식적인 면이 있으나 자국이 스스로 혹은 타국에 의해서 강제로 「국제화되

〈표 1〉 국제화의 일반적 유형

분류 \ 형태	자동사적 성격의 국제화 형태	타동사적 성격의 국제화 형태	상호교류성격의 국제화 형태
동사적 분류	자동사적	타동사적	자·타 혼용적
실체적 분류	객 체 적	주 체 적	주·객 혼용적
추진의지적 분류	소 극 적	적 극 적	상호 적극적
행위의 상태적 분류	수 동 적	능 동 적	상호 의존적

다」 또는, 자국이 상대국을 「국제화하다」라는 국제화의 상이한 점을 나타내는 조건으로서 또는, 일정한 패턴으로서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따라서 위에서 도식적으로 설정했던 일반적인 국제화의 추진유형과 베이의 분류를 기본틀로 혼합하여 일본에 있어서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대응해왔던 국제화의 유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國際化 對應類型 分析

앞에서 검토해 왔듯이 일본이 타국과의 교류와 접촉관계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 고유의 국제화는 각각 다른 시대적 배경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관해서 위의 국제화의 일반적 유형의 틀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명치유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아시아문화 중심의 국제화기」부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7-9세기 일본이 당시 당나라에 견당사를 파견한 국제화의 형태와 유형은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국가기반을 확립하려했던 시기로서 그 대응형태는 「自動詞的 性格의 模倣的 類型」으로 볼 수 있다.

2) 16세기초의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국내가 통일된 일본은 그 여세를 몰아 국내 정치적으로는 다이묘들의 정치적 기반의 확보와 국외적으로는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미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무력에 의한 정복과 병합도 일종의 국제화로 볼 수 있으므로<sup>9)</sup>이 당시의 국제화의 유형을 「他動詞的 性格의 霸權的 類型」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9)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일본의 학자들은 「대동아공영권」을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국제화로 분류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大東亞 共榮圈」은 日本이 武力으로 아시아를 侵攻하고 強制로 日本化하려 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3) 일본이 쇄국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조선통신사의 왕래에 의해서 조선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것은 7-9세기에 걸쳐서 일본이 당나라에 건당사와 견수사를 파견했던 당시의 국제교류와 함께 이것은 훌륭한 국제화의 모델중의 하나로서, 「自動詞的 性格의 模倣的 類型」으로 볼 수 있다.

4) 「大正期の 국제협조론」은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상 몇몇 학자들과 평화주의론자들의 이상에 불과했지 일본이 추구하고자 했던 아시아에 대한 정책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대정기에도 조선을 식민지로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그 저의를 알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애초부터 일본은 메이지(明治)시대 이래 아시아의 팽창을 노려왔으며(若官啓文, 1996: 26) 서구화의 과정에서도 아시아 제국에 대해서는 「정한론」과 「대만 정벌론」 등에서 보여지듯이 노골적인 국권확장의 야심을 나타내었고, 결국은 한반도와 대만을 식민지화하였다.

일본의 많은 학자들은 「대정기국제화」를 「교육에 의한 국제평화론기」로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타동사적 성격의 패권적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5)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는 서구화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일본의 근대화를 실현시켰다는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시켰으며, 그러한 현상은 내셔널리즘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었고, 이러한 사상은 「대동아 공영권」구상으로 연결되었다. 「대동아공영권론」은 일본이 아시아지역의 리더로서 독자적인 동양적 질서를 지향하려고 침략했던 것이 명백한 제국주의적 국제화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他動詞的 性格의 覇權主義的 類型」의 국제화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6) 다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강화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대동아공영권론」에서 보여졌던 침략적, 배타적, 독선적인 사고는 거부되고 다시 열린 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논자들에 의해서 메이지 초기에 있었던 서구화를 위한 개국을 「제1의 개국」기로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후의 시기를 「제2의 개국기」라고 부르고 있다.

「제1의 개국기」에 있어서 일본의 국가목표가 「서구화」, 「근대화」였다면, 「제2의 개국기」에 있어서의 목표는 「미국화」였다. 이 당시의 일본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평화국가」 또는 「문화국가」로서의 국가건설을 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여론의 일치를 보였고, 「약소국 일본의 평화적 사명」에 관해서 모리토 타츠나미(森戸辰南)는 군국주의 국가건설로 전세계에 피해를 끼친 데 대하여 사과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西尾幹二, 1988). 즉, 메이지유신 전·후기에 서구문명을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추진해

왔던 문명개화기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초기의 국제화 형태는 미국을 모방하여 경제건설을 하려고 했던 전형적인 「自動詞的 性格의 模倣的 類型」의 국제화라고 볼 수 있다.

7)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기로 부터 1980년대 말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의 시기는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현대적 의미의 국제화를 추진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국제화시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내적 국제화를 추진하게되는 「他動土籍 性格의 參與的 類型」의 국제화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는 지금까지 논의한 일본의 고유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도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제화기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화의 대응유형에 관해서는 아직 그 실체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다.

〈표 2〉 일본국제화의 대응유형

주요전환기	국제교류표어	성격적 분류	참여시기적 분류	국제화의 유형
아시아 중심의 국제화기	견당사파견	자동사적	모방적	자동사적 성격의 모방적 유형
	조선침략	타동사적	패권적	타동사적 성격의 패권적 유형
	조선통신사 왕래	자동사적	모방적	자동사적 성격의 모방적 유형
서구중심의 국제화기	문명개화	자동사적	모방적	자동사적 성격의 모방적 유형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화기	청·러·일전쟁, 조선침략	타동사적	패권적	타동사적 성격의 패권적 유형
	국제협조론(대정기)	타동사적	패권적	타동사적 성격의 패권적 유형
	대동아공영	타동사적	패권적	타동사적 성격의 패권적 유형
제2개국기	국제평화론	자동사적	모방적	자동사적 성격의 모방적 유형
현대적 의미의 국제화기	일본경제의 국제화	타동사적	참여적	타동사적 성격의 참여적 유형
지자체 국제화기	지자체에 의한 국제화			

### 3. 對應類型에서 나타난 特性

지금까지 일본국제화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일본에 있어서의 국제화의 의미에 관해서 검토했다. 일본국제화의 주요전환기를 통해서 일본의 국제화 대응유형을 분석하는 가운데 일본인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과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일본, 일본인에 있어서의 국제화의 의미는 「근대화」 특히, 「서구화」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구를 모방하여 서구화되었던 것은 국제화이며, 아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아시아를 침략했었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화로 인식하려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메이지(明治)유신을 일본의 국제화의 분기점으로 하여 아시아와의 국제관계를 축소하려고 하는데서 잘 나타나있다. 국제화에 대한 야마사키교수의 정의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국제화는 16세기 이후에 서양에 의해서 발견된 현대의 세계에 적합하게 맞추어 가는 것이었다. 확실히 근대 일본이 지향했던 국제화의 방향은 유럽중심의 국제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국제시스템의 요구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 변용해 가는 「서구화」이었으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사회의 지향은 「미국화」 즉, 미국처럼 되는 것이었다.

둘째, 「국제화 =근대화」의 발상은 아시아에 대한 멸시와 무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시아에 대한 멸시의 근본은 일본 스스로의 콤플렉스의 반작용으로 그것은 서구에 대해서 뿐 만 아니라 사실은 동양에 먼저 기인한다. 앞에서 살핀 것 같이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전에는 동양중심의 「국제화」 시기에 「자동사적 형태의 모방적 유형」으로부터 국제교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시아(대륙)에 대한 콤플렉스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다.

문화개화기의 「국제화」는 동양을 이탈해서 민족적 자존심마저 버리고 「근대화」를 위하여 「서구화」를 지향한 결과 그 목표를 달성하여 이제는 선진국이 된 일본이 과거에 교류를 가졌던 인접국가를 멸시하고, 자신감을 표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의 자신감도 서구에 대한 콤플렉스를 안고 있었고, 무리하게 발돋움하려는 불안정한 자신감이었다. 따라서 근대 일본의 「국제화론」은 콤플렉스와 자신감과의 사이에 큰 진폭이 있었다고 보여진다(喜多村和之, 1990: 44).

셋째, 신도우(新藤宗辛)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국제화는 수동과 능동과의 과상상태를 그려왔던 것이다(新藤宗辛, 1988: 62). 즉, 일본의 「국제화」의 형태는 일정한 「파라다임」이 있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사적 성격의 모방적 유형」을 추진하다가 그 힘이 강할 때는 대체로 「타동사적 성격의 패권적 유형」의 「국제화」 추진형태를 보

이고 있다

넷째, 「자동사적 성격의 모방적 유형」의 대응 방법은 집중호우식의 매우 적극적인 대응이었으며 때로는 처절하기까지 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7-9세기에 걸쳐서 견당사 파견과, 메이지유신초기의 구미 순회선과, 로쿠강에서의 무도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문화의 뿌리로서, 오랜 세월동안 교류해왔던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교류관계를 끊어버리는 냉혹함(脫亞入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다섯째, 「타동사적 성격의 패권적 유형」의 대상은 대체로 아시아의 제국가들이었다. 메이지유신 이전의 동양중심의 국제화시기의 조선 침략이 그렇고, 그 이후의 제국주의 시대에도 아시아 국가 중심이었다. 물론, 제2차대전기에는 서구의 미국을 대상으로 한 「타동사적 성격의 패권적 유형」의 국제화의 양상도 보여졌었다. 하지만 일본은 서구 제국주의 침략정책마저도 모방하여 아시아 제국가들을 침략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타동사적 성격의 패권적 유형」의 국제화유형을 아직도 아시아 해방사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인이 적지 않다.

여섯째, 현대적 의미의 「국제화론」에서는 고도성장기 초기에 있어서의 국제화는 미국에의 적응이었고 오늘날의 국제화의 성격은 일본시스템을 자찬한 경제적 패권지향이 엿보이는 경제중심의 국제화론이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세계역할론」의 강조와 「축의 이행론」에서 잘 나타나있다.

일곱째, 「자동사적성격의 참여적 유형」이 보이지 않는다. 대정기에 잠깐 거론되었던 「교육의 국제화론」은 몇몇 학자들과 지식인 그리고 평화론자들의 이상에 불과했다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당시에도 조선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후 잠깐 스쳤던 평화주의론도 전쟁에서 패한 일본으로서는 미군정하에서 비군사화 및 평화주의 이외의 정책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당시의 분위기로써도 세계평화에 적극 참여했다기 보다는 일본내의 전후 「지속의 평화론」이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 VI. 日本 地方自治團體의 國際化 對應方向

### 1. 日本 國際化의 推進體 轉換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능을 대신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다국가간의 로컬(local)의

네트워크인 리전(region)시대를 추구하고 있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일본이 막강한 경제력으로 국가형태의 국제화를 추진했을 경우 아시아 제국가들로부터 「경제에 의한 제2의 대동아 공영권」을 추구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 같다.

둘째는, 동경일극중심 발전의 문제점과 일본사회가 더 이상의 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숙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하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태평양 벨트권에 비교해서 환동해권(환일본해)지역은 뒤떨로 불려 지고 있을 만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국제화를 통하여 국제공항, 항만시설등 기반시설을 스스로 확충하게 하므로써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일본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한계에 의한 요인도 있다.

셋째는, 이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화남지역경제권」을 견제하고 이 지역에서 의 경제적 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지방자치단체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과의 경제전쟁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1997년 7월 1일부로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므로 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일본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이 아시아 지역국가들 보다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자신감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나서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국가를 대신하여 인접국가와 교역을 하라는 은연중의 패권주의의 표시이다.

다섯째, 민족국가 국민국가의 기능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리 시스템으로써 아시아 지역국가간의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인 「아시아 리전시대」를 구상하여 일본지방자치단체가 이 구상을 주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생각이다.

## 2. 日本 地方自治團體의 國際化 對應類型

이상에서 검토해온 바와 같이 일본은 국제화의 주체를 지금까지의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 가고있다. 이러한 전환은 국민국가, 민족국가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리시스템의 일대 혁명으로서 지방화시대, 지역경제권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날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편성되어졌던 동·서 냉전구조의 국제질서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편성의 향방마저도 불확실한 가운데, 한가지 확실한 것은 국제질서는 경제에 의해서 결속

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3〉 과 〈표 4〉 는 일본국제화의 패러다임을 시대적 대응유형과 함께 도표화한 것이다. 이 도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국제화의 패러다임과 대응유형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본국제화의 패러다임(I)은 일본이 메이지(明治)유신 이전의 「동양중심 국제화」로부터 「대동아 공영권기」 까지를 주요 전환기로 나누어 도표화한 것이다.

패러다임(II)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제화기」까지를 도표화한 것이다.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국제화의 대응유형은 「자동사적 성격의 모방적 국제화」와 「타동사적 성격의 패권적 국제화」의 주기적인 반복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전후 일본은 미국의 보호아래 「자동사적 성격의 모방적 국제화」의 유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국제화의 추진은 어떠한 대응유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본국제화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바라볼 때 「타동사적성격의 패권적유형」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1차세계대전이후 대정기에 잠시 있었던 「국제평화론기」를 지키지 못하고 「대동아 공영권기」로 이어졌던 유형에서 보여 주듯이 힘이 강할 때는 반드시 그 힘을 외부로 표출하는 일본고유의 국제화의 특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표 4〉에서는 새로운 글로벌리 시스템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상호의존적 성격의 참여적 국제화」 대응유형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3>일본국제화의 패러다임(1)  
(동양 중심 국제화기—대동아 공영권기 까지)

<표 4>일본국제화의 패러다임(II)  
(제2차 세계대전이후—현재까지)

## V. 結 論

일본에서의 국제화는 그 사용하는 용어만 달랐을 뿐이지 일본이 국가로 통일되기 이전부터 이웃해있는 지역과는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 국가로 통일된 이후에도 오랜 세월이 걸쳐서 수차례의 걸친 국제화의 주요한 전환기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 일본에 있어서 국제화는 무엇을 의미하며 일본인들은 국제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일본고유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유형과 그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일본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의 대응유형과 그 방향을 예측하여 보았다.

일본은 국제화를 논함에 있어서 일본이 근대화되기 이전의 동양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기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근대화 이후부터 제2차세계대전까지의 아시아와의 제반관계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하여 에도시대 말기로부터 메이지시대 초기의 시기를 근대국제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그 이후로부터 몇차례의 전환기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비판하고 일본에 있어서의 국제화의 주요전환기의 구분에 있어서 메이지(明治)유신 이전의 아시아 제국과의 제반 국제화관계에도 비중을 두고 그 대응유형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먼저 국제화의 일반적 대응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국제화의 주요전환기의 국제화대응유형을 분석했다.

이 분석에 의하면 일본에 있어서의 국제화의 의미는 서구를 향해서는 모방을 통해서 그들 사회에 진입하는 것이고 아시아를 향해서는 일본의 힘에 의해서 근대화시키는 것을 국제화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식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서구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일본이 지향해온 국제화는 언제나 서구화이었고 아시아 사회시스템의 가치와 문화는 무시되고 부정되어왔다. 일본 국제화의 기본적인 대응유형은 「자동사적 성격의 모방적 대응유형」과 「타동사적성격의 패권적 대응유형」의 주기적인 반복의 파상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즉, 힘이 약할 때는 집중호우식의 모방적 국제화의 유형을 나타내고 그 힘이 축적되면 반드시 팽창주의 노선을 걸었으며 근대이후 「자동사적 성격의 참여적 대응유형」의 국제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국제화 = 근대화」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국제화 = 서구화」를 지향했고 그 형태가 국제화로 인식되어지는 일본식 국제화관 이야말로 근대사에 있어서 일본과 아시아 제국들간에 불행한 역사를 갖게 했던 주요한 사상적 요인이었다는 생각이다. 패전후 일본은 미국의 보호아래 「자동사적 성격의 모방적 국제화」의 유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나 오늘날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국제화의 대

응유형은 타동사적 성격의 패권적 유형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밝혔다. 왜냐 하면 제1차세계대전이후 제국주의 시대에 잠시 나타났던 국제평화론기를 지키지 못하고 대동아 공영권기로 치달았던 지난날의 역사가 있으며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의 제양상은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예컨대, 1989년도 일본자치성에서는 都道府縣이 스스로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소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대강 작성에 관한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리 시스템의 요구는 지방화, 지역화시대를 재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제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아시아 리전 시대」의 추진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리전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를 아시아에서는 「국지경제권」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라고 부르고 있다(數野祐三, 1995). 그렇다면 일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제화의 추진유형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 參考文獻

- 朴正義, 「알기 쉬운 일본상식」, 同和文化社.
- 서현섭, 「일본은 있다」, 고려원, 1995.
- 이기문 監修, 「東亞 새 國語辭典」, 東亞出版社, 1990.
- Bey, Arifin, “Studying In Japan And It’s Related Problem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daigakuRonshu), No.15, Research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Hiroshima University, 1986.
- Hasegawa, Michiko, “Tyranny of Internalization,” Japan Echo, Vol,XIII, no3, 1986.
- 江淵 一公, “國際化思想の比較分析”, 澤田昭夫・門脇厚司 編, 『日本人의 國際化』, 日本經濟新聞社, 1994.
- 久松滯一・林大・阪倉篤義監修 「新版・國語辭典」, 講談社, 1984.
- 菊井禮次, “現代國家關係國際摩擦-日本國民の視點から-”, 田村悅一・柳柳瀨孝・山下高之 編, 「岐路にたつ國際秩序」, 法律文化社, 1989.
- 鹿野義夫編, 「經濟社會發展計劃の解説 — 40年代への挑戰 —」, 日本經濟新聞社, 1967.
- 大沼保昭, “『外國人 勞働者』 導入論議に欠けるもの”, 「中央公論」, 1988, 11月號.
- 大沼保昭, “『國際性』と『民際性』”, 「自由思想」, 四四號, 1986. 8.
- 尾佐竹猛, 「近代日本の國際觀念の發達」, 共立社, 1932.
- 山崎正和, 「文化開國への挑戰-日本の世界史的實驗」, 中央公論社, 1987.
- 西尾幹二, “『人の自由化』は悲劇的錯誤”, 「正論」1988年 4月號: 西尾幹二, 「戰略的『鎖國』論」, 講談社.
- 石川 好, 「鎖國の感情を排す」, 文化春秋社, 1985.
- 星野, “日本の『國際化』をめぐる學際的研究”, 星野 昭吉編, 「國際化 日本の 現在」, 1994.
- 數野祐三, 「先進社會と國際環境 — ローカル・イニシアティブの創造 —」, 法律文化社, 1995.
- 矢野 暢, 「國際化の意味 -いま『國家』を超えて-」, 日本放送出版協會, 1985.
- 矢野 暢, 「新洋行學のすすめ」, PHP 研究所, 1974.
- 新藤宗幸, “『國際化』論の系譜—『國際化』の國際構造を考える—”, “シンポジウム・明治120年と『國際化』- ナショナリズムの過去・現在・近未來へ—”, 「世界」, 1988, 4月號.

- 失野暢, 「國際化の意味-「いま國境を超えるえて」-, 日本放送出版會, 1986.
- 若官啓文: 오문영 譯, 「일본정치의 아시아관」, 동아일보사, 1996.
- 栗本一男, “異なるシステムの對應”, 「國際化時代と日本人」, NHKブックス 476, 1987.
- 伊藤彰浩, “『國際化』思想の系譜 —幕末から敗戦まで—”, 澤田昭夫・門脇厚司編, 「日本人の國際化」, 日本經濟新聞社, 1990.
- 日本經濟企劃廳, 「新經濟社會發展計劃」, 1970. 5.
- 日本經濟企劃廳總合計劃局編, 「<世界の中の日本>— その新しい役割, 新しい活力 — わが國際經濟社會の國際化の考え方」(國際化研究會報告書), 1983, 11.
- 日本經濟企劃廳編, 「2000年の日本 — 國際化・高齢化・成熟化に備えて —」, 1982年 7.
- 日本經濟企劃廳編, 「世界の中の日本 — その新しい役割, 新しい活力 —」, 1984.
- 日本經濟企劃廳編, 「世界と共に生きる日本 — 經濟運營五個年計劃」, 1987.5.
- 日本外務省編, 「外交青書 — わが外交の近況 —」, 1985.
- 猪口邦子, 「ポスト覇權システムと日本の選擇」, 筑摩書房, 1987.
- 佐佐木毅, 「政治に何ができるか」, 講談社, 1991.
- 眞鍋俊二, 「國際化の意識革命, —新時代へのパスポート—」, 法律文化社, 1990.
- 天沼香, 「日本人の國際化」, 吉川弘文館, 1989.
- 丸山眞男, “近代 日本思想史における 國家理性の問題”, 「忠誠と反逆」, 筑摩書房, 1992.
- 「ベルツの日記」, (明治九年六月二十六日の條), 岩波書店, 1979.
- 喜多村和之 “國際化思想の展開 —1960年代から80年代まで”, 澤田昭夫・門脇厚司 編, 「日本人の國際化」, 日本經濟新聞社, 1990.